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8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7.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74명 추가 확진으로 총 8,236명, 서울시 어제 12명 추가 확진, 총 266명
- 코로나19 전세계 치명률 4%가 넘어...100명 중 4명은 사망
-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인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박원순案)', 서울시민 71.4%가 찬성
-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 또는 격리로 수요 발생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시작
-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환자 입소,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
- 격리해제율 8.8%...격리해제까지 평균 14.7일, 치명률 1% 근접..."중증 치료 못 하면 계속 상승"
- 영국 정부 보고서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간다", 공공의료 예산 감축한 유럽, 코로나19 확산 '부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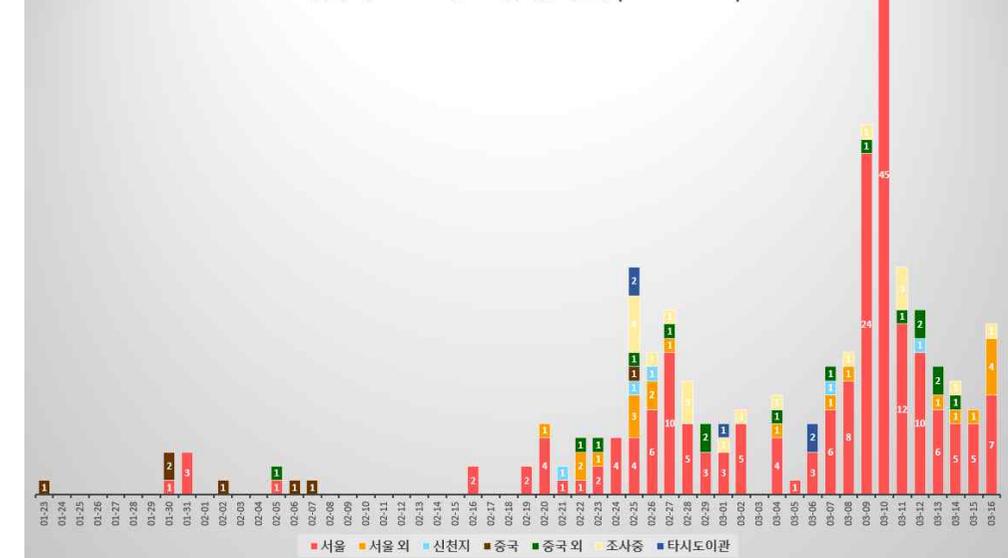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266	0	52	46,915	6,133	40,782	6,129	2,224	3,905
전 국 ²⁾	8,236	75	1,137	266,268	14,971	251,297	-	-	-
전세계 ³⁾	156,478	5,823	-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7. 0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7.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6.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유행곡선 (1.23~3.16)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2020.3.17. 0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계	구로구 A 콜센터 관련	동대문구 교회사 PC방 관련	관악구 회사 관련	금천구 E 회사 관련	경기성남 B 병원 관련	경기성남 O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력	조사중
3.16(월)	12	3	2	1	-	-	3	2	1
3.15(일)	6	3	-	-	1	1	-	1	-

- 최근 직장 내 집단 감염, 종교시설 및 의료기관 집단 감염, 가족 내 집단 감염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초역학조사 단계에서 직장이나 종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비·대응해야 함
- 성남 o교회 관련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이 보고되고 있음
 지역전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련 사·도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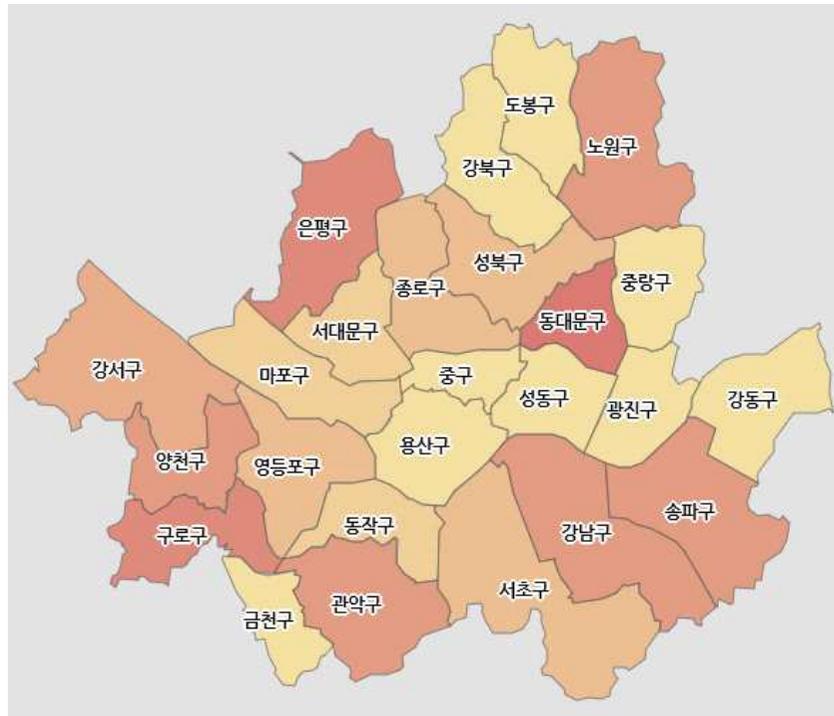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3월 17일 0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266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동대문24, 구로22, 은평18, 관악16, 송파16, 노원15, 강서15, 양천14, 강남14, 영등포12, 종로11, 성북9, 서초10, 마포8, 서대문8, 동작6, 중랑5, 강북5, 금천5, 강동5, 성동3, 용산3, 광진2, 도봉2, 중구1** 순으로 발생함. 기타17(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1	1	3	3	2	24	5	9	5	2	15	18	8	8	14	15	22	5	12	6	16	10	14	16	5	17	266
3/16	-	-	1	-	-	2	-	-	-	-	-	1	2	-	-	1	2	-	-	1	1	-	1	-	-	-	12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서울시 병원 격리자 중증도 (2020.03.16. 10시 서울시 주간보고 기준)

환자구분			상태부분						
계	병원격리자	격리해제	소계	무증상	경증	중등중	중증	최중중	*확인중
266	214	52	214	5	174	8	2	0	25

(*해당 의료기관 감염관리실에 파악 요청하여 보고대기 중임)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93	52	39	9	4	41	5	6	7	23 ¹⁾

1) (추가 1개소) 서울성심병원(동대문구), 회명병원(금천구)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48	42	39 ¹⁾	3	6

- 1) (보건소 내 3개소 운영) 동작구 (1개구 총 3개소)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영등포, 서초, 강동구 (12개구 총 24개소)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광진, 도봉, 노원, 관악,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양천, 강서, 마포, 구로구 (12개구 총 12개소)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운영: 홍대, 서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 코로나19 상담소 운영: (2개소) 광진구, (1개소) 중구, 금천, 동작, 관악구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진료		검체 검사		X-ray		비고
금일(3.14.)	누계	금일(3.14.)	누계	금일(3.14.)	누계	
1,314	46,924	1,002	27,826	14	1,058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주간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합계	3.1~3.7			3.8~3.14		
	진료	검체	x-ray	진료	검체	x-ray
계	9127	6321	118	11729	8432	86
평균	365.1	252.8	4.7	469.2	337.3	3.4
일평균	52.2	36.1	0.7	67.0	48.2	0.5
종로구	190	187	0	382	381	0
중 구	146	55	1	203	132	0
용산구	257	238	0	519	505	0
성동구	256	104	53	409	235	35
광진구	403	185	16	361	180	10
동대문구	368	241	0	631	426	0
종랑구	521	518	0	106	106	0
성북구	232	128	0	440	230	0
강북구	254	175	0	239	138	0
도봉구	372	107	30	378	147	29
노원구	146	146	0	119	119	0
은평구	501	439	1	747	592	0
서대문구	312	161	0	542	280	0
마포구	350	202	0	596	296	0
양천구	188	81	0	300	181	0
강서구	296	291	0	403	403	0
구로구	508	467	0	1329	1289	0
금천구	348	238	0	430	224	0
영등포구	238	164	0	231	185	0
동작구	512	135	0	619	184	0
관악구	573	299	0	628	407	0
서초구	650	446	10	467	291	9
강남구	876	800	7	1008	959	1
송파구	300	275	0	301	301	0
강동구	330	239	0	341	241	2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5(일)	누계	3.15(일)	누계	
계	1,769	43,730	1,155	23,665	
국가지정	212	8,195	119	4,004	
지역거점	215	6,795	199	4,706	
국공립병원	67	3,130	52	2,297	
민간병원	1,275	25,610	785	12,658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4(토)	3.15(일)	누계	3.14(토)	3.15(일)	누계	
계	164	125	2,649	140	85	2,172	
은평병원	34	31	416	32	24	391	3.3.개소
舊소방학교	43	35	537	39	28	354	3.3.개소
잠실주경기장	87	59	1,099	69	33	835	3.3.개소
이대서울병원	-	-	597	-	-	592	3.5.개소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이대서울병원은 주말에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음. 향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주 단위 비교예정

● 서울시 병상확보 현황 (2020.3.16.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실)

구분		3.13(금)	3.16(월)
합계	누계	809	909
	증감	(+171)	(+100)
국가지정병원	누계	49	49
	국립중앙의료원	33(+9)	-
	서울대학교병원	9	-
	중앙대학교병원	4	-
	한일병원	3	-
지역 거점병원	누계	13	13
시립병원	누계	667	667
	서울의료원	367(+82)	-
	서북병원	42	-
	보리대병원	48	-
	서남병원	210	-
민간병원 (상급병원)	누계	80	80
생활치료센터 (태생선수촌)	누계	-	100
감염병 관리기관지정 (일반병상)	누계	-	-
	증감	-	-
	적십자병원	-	-
	제일병원	-	-
마리아성모요양	-	-	

※ 지역별 거점병원(13) : 강남성심2, 고대구로2, 상계백3, 서울백1, 순천향대2, 삼육서울3

※ 민간병원(80) : 신촌세브란스3, 삼성서울17, 건국대3, 서울성모12, 강남세브란스1, 서울아산6, 강북삼성6, 한양대18, 경희대12, 고대 안암2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8,236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74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303명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75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동일)으로 치명률은 0.91%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7%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3%임.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5,011명(60.8%)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6.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15.(일) 0시 기준	268,121	8,162	834	7,253	75	260,050	16,272	243,778
3.16.(월) 0시 기준	274,504	8,236	1,137	7,024	75	266,268	14,971	251,297
증감	6,292 (2.3%)	74 (0.9%)	303 (26.6%)	△229 (△3.3%)	-	6,218 (2.3%)	△1,301 (△8.7%)	7,519 (3.0%)

- 새롭게 확진된 환자 74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7,024	201	53	5,279	26	12	18	21	40	180	21	25	103	3	2	969	65	2	4
격리 해제	1,173	52	53	734	4	4	4	7	-	48	7	6	12	4	2	178	20	2	-
사망	75	-	1	53	-	-	-	-	-	3	1	-	-	-	-	17	-	-	-
합계	8,236	253	107	6,066	30	16	22	28	40	231	29	31	115	7	4	1,164	85	4	4
증감	74	6	1	35	-	-	-	-	1	20	-	-	-	-	-	7	-	-	4

* 검역 추가(2020.3.16. 00시 기준) 국내입국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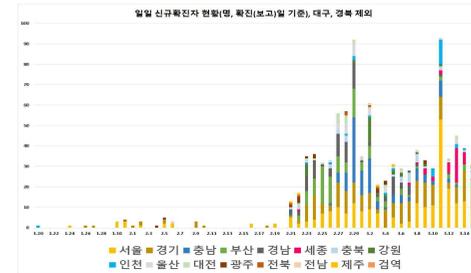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6.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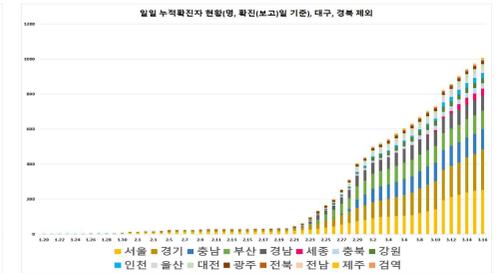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8,236명(전일 0시 기준 74명 추가)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 신규 확진자수는 어제(3.15. 00시 기준)에 이어 금일도 두 자릿 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감소추세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음.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확진자 현황 (2020.3.16. 00:00 기준)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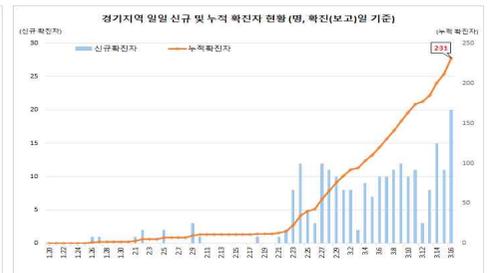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금일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 비율로 따져보면 대구경북이 전체의 절반가량이고, 경기 27%, 서울 8%로 수도권이 35%가량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특성은 대부분 집단발생으로 구로콜센터나 요양시설, 더불어 금일자로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으로 경기지역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서울/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2020.3.16. 00:00 기준)



서울지역 일일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일일 확진자 현황

- * 서울지역의 경우, 수도권 내 가장 큰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로 구로구콜센터에서 확진자 129명으로 확인됨 (전일 대비 5명 추가 확진: 서울 79명, 경기 32명, 인천 18명).
 - 콜센터 확진자에 의한 2-3차 감염(부천 생명수교회, 하나요양병원 등)의 우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발생으로 서울시 확진자 3명 확인됨에 따라 가족·지인 간의 집단감염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수정구 양지동 소재) 신도 46명 확진 판정 보고되었으며, 구로구콜센터에 이어 수도권 내 집단감염으로는 2번째로 큰 규모로 확인됨 (경기 41명, 서울 3명, 인천 2명).
 - 3.1. 및 3.8.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 3.9.~3.22.까지 2주간 폐쇄 조치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6.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8,236	(100.0)	75	(100.0)	0.91	
성별	남성	3,169	(38.5)	41	(54.7)	1.29
	여성	5,067	(61.5)	34	(45.3)	0.67
연령	80세 이상	270	(3.3)	25	(33.4)	9.26
	70-79	531	(6.6)	28	(37.3)	5.27
	60-69	1,024	(12.4)	14	(18.7)	1.37
	50-59	1,585	(19.2)	6	(8.0)	0.38
	40-49	1,147	(14.0)	1	(1.3)	0.09
	30-39	849	(10.3)	1	(1.3)	0.12
	20-29	2,313	(28.0)	0	(0.0)	-
	10-19	432	(5.2)	0	(0.0)	-
	0-9	85	(1.0)	0	(0.0)	-



* 국내 확진자는 8,236명(), 사망자는 75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91%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5,067명(61.5%)으로 남성 3,169명(38.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41명(54.7%)으로 여성 34명(45.3%)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3,139명의 확진자 중 41명이 숨진 남성에서 1.29%로 여성 0.67%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313명(28.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585명(19.2%), 40대 1,147명(14.0%), 60대 1,024명(12.4%) 순으로 나타남.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67명(89.3%)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70명의 확진자 중 25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9.26%, 70대가 5.27%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해외 현황

작성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희 주임연구원/ ☎ 02-2276-8794 (ijh4776@seoulmc.or.kr)

● 전 세계 발생 현황

- 12,013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56,296명으로 보고됨.

- 이 중 6,388명(723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4.01%(전일 3.93%)로 확인됨.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전 세계	153,517	5,735	3.74	1.98
중국	81,048	3,204	3.95	5.64
중국 외 국가	72,469	2,531	3.49	1.15

서태평양	9,862	103	1.04
유럽	45,074	1,739	3.86
동남아시아	325	7	2.15
중동	13,988	623	4.45
아메리카	2,393	46	1.92
아프리카	130	3	2.3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5.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1	이탈리아	24,747	1,809	7.31	40.95
2	이란	13,938	724	5.19	17.03
3	중국	80,860	3,213	3.97	5.81
4	스페인	7,753	288	3.71	16.59
5	일본	814	24	2.95	0.64
6	영국	1,372	35	2.55	2.06
7	프랑스	5,423	127	2.34	8.10
8	미국	3,244	62	1.91	0.99
9	네덜란드	959	12	1.25	5.57
10	한국	8,162	75	0.92	15.81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6.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이탈리아 공공의료서비스의 위기가 세계에 경고를 보내고 있어

공공의료시스템의 위기가 코로나19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의료 투자를 감축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의료시설, 장비, 의료진 부족)이 나빠짐. 제한적인 시설과 인력에 비해 짧은 시간에 환자가 폭증하여 기존의 의료시스템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집중 발생한 지역에서 환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한 '선별치료'로 의료윤리 논쟁이 벌어짐.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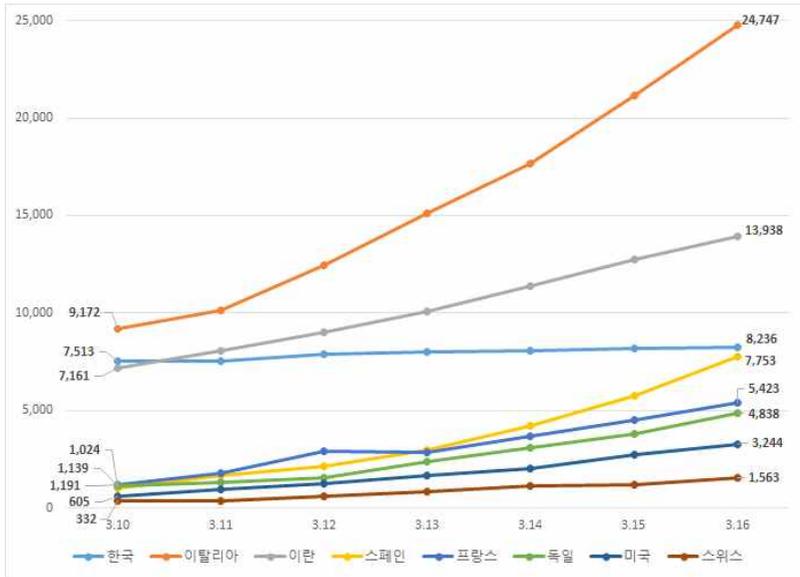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15.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61,518명(전일 대비 9,751명 추가, 18.8%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2,199명(전일 대비 424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3.57%(전일 3.39%)확인됨.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이탈리아	9,172	10,149	12,462	15,113	17,660	21,157	24,747	1,809
이란	7,161	8,042	9,000	10,075	11,364	12,729	13,938	724
스페인	1,024	1,639	2,140	2,965	4,231	5,753	7,753	288
프랑스	1,191	1,784	2,281	2,876	3,661	4,499	5,423	127
독일	1,139	1,296	1,567	2,369	3,062	3,795	4,838	12
미국	605	959	1,220	1,663	2,034	2,726	3,244	62
스위스	332	332	613	858	1,125	1,189	1,563	13
중국가수	99	103	107	110	114	123	130	
총환자수	105,687	109,915	116,3087	125,234	134,405	144,283	156,296	
총사망자수	3,939	4,224	4,548	4,884	5,316	5,665	6,388	



● 중국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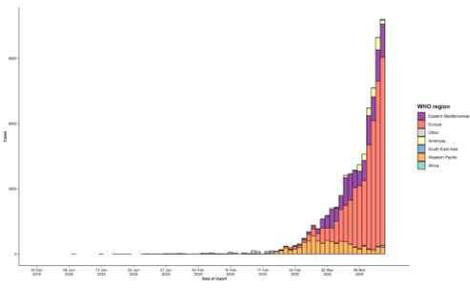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860명(전일 대비 16명 추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3,213명 (전일 대비 14명 추가)으로 치명률 3.97%로 확인됨.
- * 16명 증가인원 중 후베이성 4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임. 중국으로 역유입된 환자는 총 123명임.
- * 베이징 - 모든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14일의 호텔 강제 격리 조치 실시함.

중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6.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15.(일) 9시 기준	80,844	3,199
3.16.(월) 9시 기준	80,860	3,213
증감	16	14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5.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4	1	10	67,794	3,085
광둥성	11,346	1	1	0	1,357	8
허난성	9,605	0	0	0	1,273	22
저장성	5,737	4	2	0	1,231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5	9	0	482	8
상하이	2424	3	24	0	442	3
홍콩	745	4	0	0	141	4
대만	2359	3	0	0	53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3	2	0	7,247	68
총 합	148,823	27	39	10	81,048	3,204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15.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2. 정책 동향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정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박원순案), 서울시민 71.4%가 찬성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을 조사 함

- * 서울시는 지난 3월 12·13일 양일간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 임의결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 * 지난 10일 서울시는 정부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기준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5월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 * 이번 조사는 긴급 생활비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함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찬성]

- 조사결과,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 제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구제 시급'(39.7%),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30.7%), '위기에 취약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필요'(28.5%) 순으로 조사됨

[서울시민 10명 중 6명, "박원순 서울시장 안"선호]

-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재난긴급생활비지원)(박원순案) 중 어떤 방식에 더 공감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박원순 서울시장 안'에 대해 더 공감한다고 응답함
- * 소득,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은 29.4%로 조사됨
- 특히,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이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2개월 동안 가구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67.3%, '부족하다'가 27.6%로 나타남

●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크 필터 및 대체기술 확보 위한 기술공모 실시

-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마스크 품귀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들의 기술 제안을 통한 마스크 필터 및 대체기술 기술공모를 진행함
- 마스크 대체 필터 및 대체기술에 관심 있는 국내외 일반시민,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 이번 마스크 크라운드소싱 기술공모의 과제는 ▲MB필터 대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필터, ▲기존 마스크 기능을 대체할 신개념 마스크 또는 기술 개발 등의 2가지 도전과제이며, 선정되는 신개념 마스크 기술을 통해 향후에도 각종 바이러스 감염 증 대응 및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크라운드소싱 기술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시민, 단체 및 기업은 '신기술접수소'의 '기술공모' 양식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음
- * 공모에서는 1차 서면평가, 2차 성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
- *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혁신기술로 선정될 경우 도전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수여받고, 서울시에서 실증이 진행되는 형식의 절차가 이뤄짐
- * 도전과제 1: MB필터 대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필터(3.9~4.8까지 접수)
- * 도전과제 2: 마스크 기능을 대체할 신개념 마스크 또는 기술(3.9~5.8까지 접수)
- 향후에도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집단지성 및 의견 수렴에 기반한 크라운드소싱 기술공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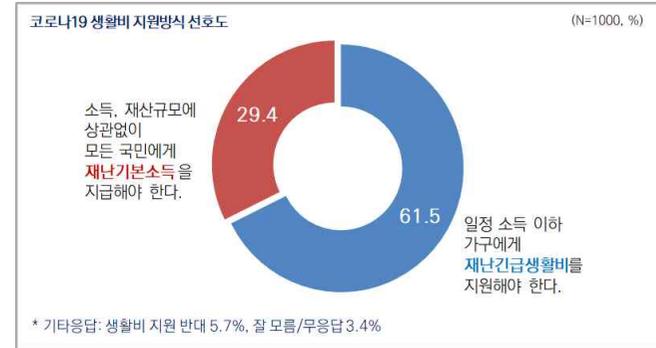
[참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

2020.03.12.~13(2일간) 1,000명 전화면접조사

조사대상	서울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방법	CATI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비례 할당추출
표본수	1,000명	응답률	22.9% (총 4,366명 연결 중 1,000명 응답)
조사기간	2020년 03월 12일~13일(2일간)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A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

문1.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활경제를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추진방식 중 어느 방식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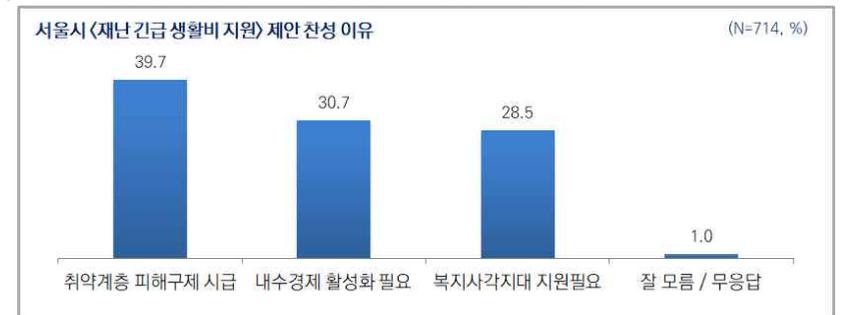


* '생활비 지원에 반대한다'는 보기는 불러주지 않음

문2.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정부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5월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2개월 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1. (Q02 = 1, 2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이 제안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2. (Q02 = 1, 2 응답자만) 긴급생활비지원이 시행된다면, 2개월 동안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3. (Q02 = 3, 4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이 제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 서울시에서 제안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이 배달 및 택배 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도움 정도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매우 그렇다 ①	대체로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지원 찬성' 응답자 (n=714)	92.9	6.3	31.4	61.6	5.4	0.9	0.7
	'지원 반대' 응답자 (n=246)	43.3	55.0	9.2	34.1	24.4	30.6	1.7

●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16일(월) 시작함
 - *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 [유형1]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서비스(식사 도움, 청소 등) ○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제공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지원(위생케어, 식사 도움, 청소 등) ○ 부분지원(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 [유형2] 24시간 내부생활 지원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리시설 활용(입주지원) ※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입주

-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함
-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서울시는 인재개발원(2.8.)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3.4.)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임.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함
 - *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 향후 민간서비스 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 돌봄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
- 긴급돌봄 신청은 16일(월)부터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지속할 예정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시행 중임
-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대응 메뉴얼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도도 안전을 기한다는 계획

● 서울시, '자활사업체' 활용해 방역 촘촘히...취약계층 일자리도 확대

- 서울시가 소독·방역 업무 전문 19개 '자활사업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내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을 보다 촘촘히 하고 취약계층의 일감이나 일자리도 늘리는 1석2조 사업을 추진함
 - * 서울시는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 19개 '자활사업체'는 서울시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에 힘쓰고 있음



- 또 일반 가정이나 가게 등 생활공간에도 소독·방역을 하고 싶지만 업체 정보 등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개 자활사업체(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리스트도 온라인으로 공개함
 - * 19개 리스트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wis.seoul.go.kr>)과 서울광역자활센터 누리집(<http://www.sjahwal.or.kr>)에 게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각 업체로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됨
- 복지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활동은 서울시내 14개 자치구, 19개 자활사업체(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가 투입돼 3월부터 시작함. 외부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환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숙인 이용 복지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고 있음
 - * 지금까지 노숙인 복지시설 34개소에 대한 1차 방역을 완료, 이동차량, 공용 이용 공간, 숙식 공간, 다수가 이용하는 문고리 등을 꼼꼼하게 소독,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독할 계획임

● 서울시, 체온계 1,300개 배부...동 주민센터서 체온측정 서비스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온계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체온계 가격이 폭등하고 품절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긴급하게 디지털 체온계 1,300개를 확보하여 각 자치구에 배부함
- 현재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센터에선 시민들의 체온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보유한 체온계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체온계 공급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425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체온계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기부...'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

- 서울시가 보건용 마스크(KF80/94)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과 어르신, 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 택배기사, 다중고객 응대 종사자 등 감염취약 직업군 등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16일부터 지원함
- 최근 시민사회에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적마스크 구매기회를 양보하고 나아가 마스크를 기부하는 '마스크 양보하기' 캠페인이 확산, 서울시가 이를 위해 '착한 마스크 세트(면 마스크+휴대용 손소독제)' 320만개를 우선 지원함
 - * 면마스크는 기침 등으로 인한 비말 차단효과가 있으며 감염우려가 낮은 환경에서 일반인을 위한 보조적 예방수단으로 의미가 있으며 교체형 필터를 끼울 경우 감염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또한 손을 통한 감염이 주요 경로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며,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용 손소독제가 매우 유용



- 서울시는 절대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건강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곧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선순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임
- '착한 마스크 캠페인'은 3월16일(월)부터 매주 월수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100여 곳에서 참여할 수 있음
 - * 현장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활동
 - *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착한 마스크 세트'를 받고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
- 서울사자치구 공무원, 공기업, 공공재단 임직원 7만8000명도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동참, 서울시 공무원부터 선도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고 '착한 마스크 세트'를 받는 행사를 3.17일부터 시행
- 시민들이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건강 취약계층,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취약 직업군(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택배기사, 고객응대직업 종사자 등)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

● 생활치료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한 상황이라고 밝힘
 -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5명, ②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284명, ③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195명, ④경북대구2(농협교육원) 197명, ⑤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⑥경북대구4(한티 피정의집) 62명, ⑦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38명, ⑧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기숙사) 290명 ⑨경북대구8(현대자동차연수원) 254명, ⑩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5명, ⑪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253명, ⑫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96명, ⑬충북대구2(연공공단 청풍리조트) 141명, ⑭충북대구3(기업은행 종합연수원) 179명 ⑮충북대구4(사회복무연수원) 201명 ⑯전북대구1(삼성생명 전주연수소) 166명
- 3월 15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되어 퇴소함
 - * 또한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함
-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inPHR)을 도입하여 실시간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
 - * 현재 경북대구2센터(고려대병원)와 경북대구7센터(강원대병원)에서 사용 중
 - * 경북대구1센터(삼성의료원) : 구글독스(Google Docs, 구글 설문지) 사용
- 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체온 등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센터 내 의료진들은 계기판(대시보드) 등을 통해 한눈에 모든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 것임
 - * 환자와 의료인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센터 내 환자들에 대한 의료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경북대구5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에 평택백병원, 전북대구1센터(김제 삼성생명연수소)에 서울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새롭게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 현재 각 센터별로 협력 지원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집한 공중보건과의사와 간호사 등을 센터에 배치하여 의사 120명, 간호(조무)사 255명 등 총 409명의 의료진이 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파견된 모든 근무자가 퇴소 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힘

● 의료용 방역물품 공급 관리 방향

- 정부는 의료용 방역 물품의 전략적 공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됨에 따른 조치임
 - * ① 국내 생산 확대 지원, ②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 정부는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하여,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 창출
 - *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능력 및 제품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 앞으로도 방역 물품에 대한 상시 구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
 - *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 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유사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하여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임
 - * 우선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
 - *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 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 확보할 예정
 - * 아울러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 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

● 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 정부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유럽 지역의 경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힘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현행 (11개국)	확대 (3. 16. 0시부터 적용)
(아시아) 중국(2. 4.-), 홍콩(2. 12.-), 일본(3. 9.-), 이란(3. 12.-) (유럽) 이탈리아(3. 12.-),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3. 15.-)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로 확대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 이는 최근의 유럽 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 속도와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결과) 3월 13일 확진자 1명, 3월 14일 확진자 3명 발생
-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확인,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 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기 위한
- 더하여,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할 계획
- * 3월 16일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하여 검체 채취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함
- * 그 외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도록 안내함
- * 이를 통해,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정부는 3월 15일 '코로나19'로 대구로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 *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이며, 인구 수에 비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한 것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임

●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함
- 파견 인력의 최적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 역량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음
 - *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음
 - * 단, 의료 인력이 요청할 경우 인력 공급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속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함
-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임
 - *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1.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강화

① [급여 지원] 건강보험 선(先) 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함
 - * 선 지급 :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됨
 -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 →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임(2.28.~)

② [치료 지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3.20.~)
 - *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 지원(2.24.~)
 - * 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
-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3월 말~)
 - *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 ③ [행정기준 유예]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2.19.~)
 - *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기관 수가 적용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
 - *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2.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 신속 지원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4월~)
 - *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3월 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3월 말~)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 보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
-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뒀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할 상태임
 - * 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 배정 (의료계 합의, 3.5.)
 - * 지난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 말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 수요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

③ 인프라 확충(추경)

-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

3.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의료기관 응자 지원 추진

①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함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
 - * 규모 큰 의료기관: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 * 손실보상위원회: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총 14명)

② 의료기관 응자 지원(추경)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응자 지원을 추진
-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응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응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임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재정
I. 건강보험 지원			
급여 지원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건강보험 조기 지급		
치료 지원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건강보험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지원	국민안심병원 316개소	
	생활치료센터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16개소	
행정기준 유예	시설·인력 변경신고 유예	전체 의료기관	비예산
	의료기관 조사·평가 유예	전체 의료기관	
II. 예산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	233억 원 (일반회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69개소(3.16 기준)	390억 원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	48억 원 (일반회계)
	중증환자 치료 병상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의료기관	380억 원 (일반회계)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보호복, 방역용마스크, 이동형음압기 등 지원	의료기관, 보건소, 소방방재청 등	540억 원 (일반회계) 923억 원 (추경 정부안)
추가 지원	음압병실 추가 확충	120병상	420억 원 (추경 정부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	120억 원 (추경 정부안)
III. 손실 보상			
의료기관 손실 보상	손실발생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상	병원, 약국 등	7,000억 원 (예비비 3,500억 원 추경 정부안 3,500억 원)
의료기관 응자 지원	의료기관 대상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응자신청 의료기관	4,000억 원 (추경 정부안)

3. 주요 뉴스

발생·치료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두자릿수...총 8236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7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총 확진자 수는 8236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대구다. 3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서울은 6명, 부산·세종은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6일 0시 기준 전날과 동일하게 75명이다. 증상이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303명 증가한 1137명이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30832>)

● 코로나19 격리해제율 8.8%...격리해제까지 평균 14.7일 소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확진자 8086명 중 714명이 격리해제 돼 격리해제율이 8.8%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확진일부터 격리해제까지는 평균 14.7일이 소요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로 나타났고, 격리상태별로는 의료기관 입원격리 73%(521명),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26.5%(189명), 자가격리 0.6%(4명)로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은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014364908&code=611211111&cp=vn>)

● 코로나19 국내 치명률 1% 근접..."중증 치료 못 하면 계속 상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지만 연일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치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확진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이란 점도 치명률을 높이는 요소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의 90%는 60세 이상 고령이었다. 16일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1일 0.4%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전날 0.9%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치명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치명률을 낮추려면 대구·경북 지역 입원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초반 닷새 정도는 상태가 관찰다가 이후에는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다. 결국 초반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방어력을 갖출 때까지 버티도록 해야 하는데 의료자원을 중증환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분류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 병원에 있는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5059100017>)

● 美의원 "FDA, 한국 진단키트 부적절 판단" 주장에 질본 "사실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자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쓰는 진단키트 4종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한국의 RT-PCR(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단계의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대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허가신청이 이뤄

진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를 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관리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FDA는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진단키트가 적절하지 않고, 비상용으로라도 미국에서 이 키트가 사용되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NBC뉴스 등 외신이 전했다. 권 부분부장은 이에 "FDA 허가 신청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항체검사법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국 FDA나 이를 인용한 의원의 발언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15165305644>)

● '레벨D 방호복 없어도 안전'... 환자·의사 분리 검사시스템 도입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시의심한자와 의료진의 공간을 분리하는 '글로벌-월(Glove-Wall)'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료소 내부 중앙에는 투명한 아크릴벽을 사이에 두고 검사자와 의료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의료진은 글로벌(장갑)이 설치된 아크릴벽(글로벌-월) 뒤에서 맞은 편에 있는 의심 환자의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내부에는 음압기기를 설치해 진료소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고, 이로써 의료진은 레벨D 방호복 없이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 우려도 크게 덜었다. 글로벌-월 시스템은 지난달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에 도입된 후 서울시 산하 병원 및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벤치마킹했다. 태릉선수촌에 설치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도 도입돼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5059300017>)



● '우려가 현실로' 유럽 입국자 4명 확진..해외 차단 강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다가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가 이틀간 4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럽 감염자 폭발 증가·EU 생계조약마저 무력화시킬 정도: 정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대상 중·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국 외에 유럽 전체 국가로 확대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거나 입국자를 14일 동안 격리·관찰하는 조치를 내리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심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럽연합(EU)에서도 회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독일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주변국과 국경을 전격적으로 봉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계조약'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 만큼 상황이 엄중함을 의미한다.

中·日 국경 닫는데 한국 마이웨이?...무증상 젊은 층 심각지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140곳까지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 70%가 넘는 나라들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는 모든 입국자들이 시 당국이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재용 대한검진학회 학술이사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도 우리나라는 해외 유입에 의한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무증상(무자각) 상태로 입국해 검역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10~30대 젊은 층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16135314299>)

● “미국이 한국에 배울 점은…” 미국 뉴스 출연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6일 미국 3대 방송 중 하나인 NBC의 나이틀리 뉴스(Nightly News)에 출연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조했다. 코비엘라 기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나”고 묻자 박 시장은 “감염병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투명, 신속”이라며 “무엇보다도 많은 테스트를 보장해서 누구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확진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진자가 생기면 동선을 재빨리 파악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9253>)

●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끊긴 노인·장애인에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끊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전화(☎ 02-2038-8707), 이메일(jinyhungk@seoul.pass.or.kr), 팩스(☎ 02-2038-8749)로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돌봄 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지정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영어마을을 수유캠프에 입소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4027200004>)

● ‘코로나19’ 확진자 주소·직장 비공개가 새 원칙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동경로와 방문 장소 등도 이전처럼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 지침을 보면, 앞으로는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시기 등을 고려해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만 해당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고, 역학조사에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검체 채취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방역당국이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 지침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인권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금은 위험이 높은 상황에 우선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32672.html>)

● “나는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들을 더 발굴해줄기를 바란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공병원 응급실 폐쇄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서울에 고작 8곳뿐이고, 그곳마저 폐쇄되니 취약계층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엔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응급실 구실을 하는 곳은 공공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요즘 공공병원의 힘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중이다. 만약 국가의 응급을 담당할 공공적 성격의 병원이 충분히 많았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폐쇄병동에 몰려 있던 ‘사라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났다. 죽음이라 슬프지만 나는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들을 더 발굴해줄기를 바란다. 미래의 의료에는 병원에 환자를 몰아넣을 것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때때로 흩어질 수 있는, 움직이는 의료 또한 필수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찾아가는 의사)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552.html)

● 의대 교수의 요양병원 르포 ‘이곳, 마스크 부족한 방역의 틈’

구로구 콜센터가 수도권 슈퍼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필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곳에서의 집단감염은 규모도 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마스크 점검받느라 아껴둬 답답” 최근 여러 곳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뜻밖에도 셋 중 한명꼴로 환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병원장은 “시장에게도 이야기했고, 이미 2월 초에 방역당국에 전화해 마스크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을 하소연하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소용없었다”며 “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해서 아껴둔 마스크를 직원들에게 착용시켰다. 그나마 부족한 마스크를 점검받느라 아껴둬야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간병인, 공적 마스크 공급 배제** 병실에서는 한 간병인이 여러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보고 있으니 집단감염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만성질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감염되면 순식간에 중한 상태로 악화해 피해가 견딜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물리치료사와 간병인 등도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주 장기요양시설의 집단사망도 직원들이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런데도 마스크 대란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탓에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간병인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진단검사 절차에 신청 저조** 요양병원 출입자 통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인력 운용의 유연함이 부족하다 보니 출입자 상시 통제를 위한 직원 배치가 쉽지 않고, 시설 특성상 결까지 출입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병원장들은 “새로 근무를 시작한 간병인의 인적사항은 파견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우려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종사자의 발열·호흡기 증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따지는 게 많다. 정작 필요한 지원은 없고 온갖 보고와 점검에 부담만 더 늘어난 형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이러스는 허술한 방역 틈 파고든다** 코로나19 유행이 사실상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중에서도 고령의 노인인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가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텼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된다면 구로구 콜센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급한 대로 방역 물품이라도 우선 공급해야 하며, 발열·호흡기 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가동해야 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에도 지금의 문제들이 유사하게 거론됐다. 바이러스는 허술한 방역 틈을 비집고 들어와 결국 집단감염을 유발한다는 교훈도 새롭지 않다.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547.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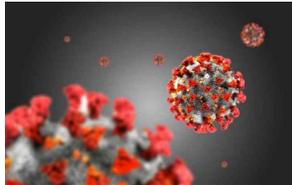


● **코로나19 검사 정확도 논란..학회 "현재 RT-PCR이 세계 표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진단키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단검사의 정확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 정부는 국내 진단검사의 정확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에서 언급된 진단검사법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체 검사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RT-PCR 검사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도 국내에서 시행하는 RT-PCR 진단검사 방법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에 사용하는 '표준'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김재석 한림대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RT-PCR 검사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고,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체 검사 역시 진단검사로는 쓰기 어렵다"며 "단순히 이 사람이 (감염원에) 노출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진단검사 자체는 RT-PCR이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15183311335>)

● **영국 정부 보고서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간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이 보고서는 영국공중보건국(PHE)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고위 관계자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최대 15%인 790만명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보건 당국 수장들이 코로나19가 향후 1년간 창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윌리 박사는 이런 수치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전염병학 전문가인 폴 헌터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는 "코로나19는 6월말 즈음 여름철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11월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본다"며 "계절성 독감이 그렇듯이 체내에 면역체계가 구축되면 바이러스가 다소 약화될 뿐 영원히 주변에 맴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1443001&code=970100)

● **독일도 결국 국경통제...유럽, 코로나 일일 확진·사망 최고**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무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결국 독일도 국경을 부분 통제하기로 했다. 주변국들의 잇따라 국경 폐쇄에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치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룩셈부르크·덴마크 등 5개국과의 국경에서 당분간 국경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16일 오전 7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상적인 통근과 물류 이동은 허용된다. 제호퍼 장관은 "바이러스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태의 최고 정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한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사민당의 배르벨 바스 의원(원내 부대표)은 현지 일간(디벨트)에 "신규 감염 발생이 줄지 않으면 전면적인 국경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과 접경한 덴마크, 폴란드, 체코는 먼저 독일 쪽 국경을 폐쇄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32767.html>)



● **도쿄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 여론 81%(일본 매체 조사)**

7월 개막 예정인 2020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미루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 80%에 이른다는 일본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호치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전체의 62%가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과 아예 중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로 비슷하게 나와, 연기 또는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나 됐다. 스포니치의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890명이 응답했고 이중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7.2%인 509명이나 됐다. 또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0.6%(183명), 예정대로 진행은 17%(151명)로 각각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사건을 전제로 올림픽 1년 연기를 언급했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독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에 따르겠다"고 답해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5060600007>)

● **[팩트체크] 코로나19 따뜻해지면 소멸?...WHO '고온다습해도 전염'**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인 까닭에 아직 많은 부분이 '공린' 또는 '세모'로 남아있다. 하지만 계절 독감처럼 가을, 겨울에 맹위를 떨치다 물러날 수 있다는 기대적인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전문가, 외신 등은 '날씨 변수'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WHO는 최근 홈페이지 코로나19 항목의 '미신 깨기(Myth busters)' 코너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의 증거로 미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기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지역에 살거나 여행한다면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1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며 "독감처럼 여름에 사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된 희망(false hope)'"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3181100502>)



● **공공의료 예산 감축한 유럽,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메랑'**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의료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현저히 나빠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공공의료시스템 위축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에선 일부 병원들이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윤리 논쟁'까지 벌어졌다. 중환자실과 병상, 인공호흡기 등 의료시설·장비가 모자란 데다 의료진도 부족해 일부 병원이 환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한 '선별 치료'에 나섰다. 특히 공공의료시스템의 위기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5일 현재 감염자가 7753명이 나온 스페인은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도 공공의료시스템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3.0개, 1인당 의료예산은 2390달러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공공의료 위축이 두드러진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2009년에만 약 2만6000개의 병상이 줄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줄어 총 1만7500개의 병상이 더 사라졌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52128025)

● **"아파도 병원 못가..美건강보험이 코로나 재앙 키울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한 미국이 차별적인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인구 3억 2720만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수천만 명이 병원에 찾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 2750만명, 진찰비만 수십만원** :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단 몇 분 동안 상담하는 데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내야 한다. ◇ **기본보험 가입돼 있어도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 기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찰비만 1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다. ◇ **유급 병가도 없어...1년 내 2억명 감염 가능성도**: 간호사는 코로나19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어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 중 하나이지만, 유급 병가도 받지 못한다. 미국에선 유급 병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15165735710>)

● **"美코로나 최악 2.1억명 감염, 170만명 사망"**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만 1억 6000만~2억1400만 명이 감염되고, 심하면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즈>(NYT)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리들과 대학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논의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모델분석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최대 2억 1400만 명이 감염되며 사망자는 20만~170만 명, 병원 입원자는 240만~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감염 여부 검사 확대, 감염자 접촉 동선 추적, 대규모 집회 중단 등 사람들 간 교류 축소, 재택근무, 이동제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NYT 보도는 악영향 비율로만 구성된 CDC의 모델을 입수해 전문가 분석을 거쳐 절대 수치로 바꾸는 방식으로 추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의과대학 UCSF(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조 데리시 USCF 수석 연구원 등은 "미국 인구의 40~70%가 향후 12~18개월 동안 감염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15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프레시안(http://m.pressian.com/m/m_article/?no=283282)

● **"코로나19 확산 속 마스크 착용에 동서양 문화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에는 동서양 간의 문화 차이가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후 대중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의 상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붙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책임 차원에서 접근하고, 질병 외에도 대기오염 차단 및 겨울철 보온 등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SCMP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마스크가 동양계에 대한 인종주의나 낙인찍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요크대학의 사회학자 해리스 알리는 "북미에서 마스크는 아시안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용인되지 않는다. 낙인찍기가 된다"면서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없어졌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15163244459>)



● **"국가비상사태"...미국이 멈췄다"**

미국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멈춰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민의 국내 일부 지역 이동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첫 주말인 14일 수백명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각종 놀이시설과 문화시설도 폐쇄됐다. CNN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 노력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해 오늘 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420억달러(약 51조원)의 재난기금을 주정부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미 연방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무료 진단검사 및 노동자 유급병가 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인들의 일상도 큰 타격을 받았다. 각급 학교가 줄줄이 휴교에 들어갔으며, '사재기 광풍'으로 대형 매장과 상점 곳곳에 텅 빈 진열대만 덩그러니 남았다. 각종 종교와 스포츠 행사들도 '올스톱'됐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2242005&code=970201)

[인터뷰] "감염병 위기, '갈라치기' 정보에 맞선 사회심리적 방역이 중요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51)의 관심 분야는 '공적 위기소통'이다. 유 교수 연구팀이 지난 2월 25~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보니 59.8%가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1차 조사 때 48.0%보다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은 '불안'(48.8%)이 가장 많았고, '분노'(21.6%)가 뒤따랐다. 1차 조사 때도 불안(60.2%)이 가장 높았지만 분노는 공포, 충격에 이어 4번째였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대구·경북 시민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방역은 왜 중요한가. "몇 년 안에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과도하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합리적 위험인식), 현재 권고되는 내용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사회적 효능감), 우리 정치는 국민 건강을 우선할 것이고, 지역사회가 잘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신뢰)이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높지 않으면 쓸림이 생길 수 있고 감정을 따라갈 수 있다(바이러스 리터러시). 어떤 사태가 일으키는 부정적 정서가 크면 보건당국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 반응이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의 불안 양상이 달라졌고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불안이라도 위험이 변해가면서 달라진다. 초반에는 '진정하라'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마스크도 구할 수 없고,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게 될 상황이고, 대구·경북에 살았을 뿐인데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절대 느슨해지지 않겠다'와 같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니거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강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다. 메르스 때는 정보 공개를 둘러싼 투명성의 문제가 컸다. 지금은 위기대응이라는 게 시민사회 협조와 동참, 성숙한 시민의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위기소통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위기소통이란 뭘까.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를 동안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해요'라고 말하면 통한다. 어느 날 나타난 고위직보다는 신뢰원천이 높은 이들을 찾고 함께 소통해야 한다. 시민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 세심하게 위기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낙인과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해외 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연소 위기'가 있다고 말한다. 빨리 타오르고 빨리 전개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개선할) 기회의 창이 빨리 닫혀버린다. 우리는 메르스 때 경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자', '역학조사관 늘리자'는 목소리는 새로운 의제가 만들어지면서 힘을 잃었다. 감염병을 둘러싼 차별·낙인, 의료인들의 번아웃·트라우마 등이 정신심리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위기 뒤에 위기, '긴 그림자 위기'가 올 수 있다. 단순히 낙인이나 혐오가 나쁘다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그간 위기대응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느니 신중하게 하라. '신뢰적자'를 매우는 소통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처음에는 의료인들이 열악하게 시작한 게 사실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식으로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게 정부로서 좋은 전략이다. 어떻게 시민사회와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성숙한 시민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 극단적 경보는 무기력감을 주고 신뢰를 고갈시킨다. 언론은 신호·경보 중심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50910031)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상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외과학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제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총합	67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산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국민안심병원 현황]

2020. 3. 16. 기준

[서울시]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지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6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9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0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4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8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1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2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33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34	송파구	한솔병원	외래진료	02-2147-6000
35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6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7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8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39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40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41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4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43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4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5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6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47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8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49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50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51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52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5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54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55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총합	22개 자치구	55개소	외래 31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3)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목기념봉사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새우리남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우리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담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시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러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6)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광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서대구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참조은병원, 천주성심병원, 푸른병원
광주(5)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3)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안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척병원, 사강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월성기림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세료은병원, 예순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웰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촌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제이에스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고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국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8)	강릉고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성지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분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총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총무병원*, 현대병원
전북(10)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남(13)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톨릭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5)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바른유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모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9)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자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라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개 시도 265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6)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4]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8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9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0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1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2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3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4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입병원) *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5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6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7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8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9 건강상담소	02-879-7241	49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저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0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1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지암보건지소	02-450-7090	52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3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4	영등포구	상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5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6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7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8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2	금천구	희망병원	02-2219-7231	59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3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4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1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5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2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6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3	종로구	강북성심병원*	02-2001-2001
27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4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8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5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9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6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7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진료소	02-3396-5181
31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68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2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9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0	서초구	서초 소양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4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1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5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2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6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3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7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1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